



우리금융, 시너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8일 '시너지 아이디어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직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손태승 회장(왼쪽 네번째)이 지난 18일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시너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제안에 최종 선정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초록마을, 강원도와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 맞손

초록마을이 강원도, 강진연(강원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과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왼쪽부터) 최근환 강진연 회장,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준규 초록마을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마을



제너시스 비비큐,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계약

제너시스 비비큐가 대한체육회와 지난 18일 올림픽문화센터에서 대한체육회 치킨프랜차이즈 부문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부문 최초로 선정됐으며 2024년까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팀코리아)을 대상으로 총 4년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왼쪽부터)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BBQ



매일유업, 스포츠 스타들과 근자감 챌린지 성료

매일유업이 지난 5월 시작한 스포츠 스타들과의 '근육자신감 챌린지'를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 5월 6일부터 6월 6일까지 1개월 간 진행된 근자감 챌린지에는 농구선수 허웅-허준(왼쪽에서 네번째, 세번째)과 김중규, 축구선수 조현우와 윤석영, 골프선수 이보영, 배구선수 한유미와 김요한, 러닝선수 임소영, 야구선수 최지만이 참여했다. /매일유업



롯데하이마트,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 구축 추진

롯데하이마트가 18일 한국환경공단,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함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사진 왼쪽부터) 롯데하이마트 맹중오 상품본부장, 한국환경공단 김은숙 본부장,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황중수 이사장이 참여했다. /롯데하이마트

식물성 군인들, 정치에 재배되다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군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맹수와 같은 기질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선진 민주국가는 '문민통제'를 통해 군인을 길들인다. 그런데 이땅의 군인들은 문민통제라는 사역을 따르는 사냥개가 아닌 '식물성 군인'이 돼가고 있다. 재배되는 식물처럼 말이다.

지난 15일 MBC PD 수첩은 '천안함 폭침' 이전 북한의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했지만, 군 수뇌부가 이를 보고받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의 증언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상황보고도 이상하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은 신속히 전투상황보고를 통해 피격 사실을 알렸지

만,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를 거쳐 청와대에 올라갔을 때는 좌초됐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전우들이 희생된 상황을 왜 굳이 좌초로 보고했어야 했을까? 안보를 중시여긴다는 보수 정부 시절인데 말이다. 이를 두고 군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심기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꽤 오래 전부터 돌았다.

군 당국의 보고가 피격이 좌초로 그리고 다시 피격으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은, 전선의 전우들 뒷통수에 총을 쏜 '배반 행위'나 마찬가지다. 적절한 상황조치도 하지 못했고, 좌초보고로 인해 온갖 음모론이 10년 넘게 천안함 전우들을 괴롭히고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환자복을 입은 천안함 생존자들을 내세워 기념촬영을 했다.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홍보수단으로만 쓰였다. 여기에 진보진영의 음모론이 들러붙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천안함 생존자들의 일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보수 정부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인정됐지만, 생존 전우들 모두 식물성 군인들의 정치바라기로 인해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짊어진 채 진보진영의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식물성 군인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 지난 18일 정부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충격이었다. 북한과의 평화기조를 중시하는 진보 정부가기에 '한국전쟁(6.25) 70주년'을 조용히 넘길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말이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측 실무자로 나선 장군이 70주년 기념행사로 제안한 것은 '비무장지대(DMZ) 평화걷기'였다고 한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은 낮추고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남북 모두 상호신뢰에 의한 군축도 하지 못한 상태다. '만의 하나'라는 위협의 가정을 두고 행동해야 하

는 군인이 제안한 것이 지뢰 폭발과 우발적 오인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평화걷기를 제안했다고 하니 어찌 충격을 받지 않겠나.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지블놀이 정도로 생각한 담대함이었는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정치에 의해 재배되는 식물성 군인에게서 세월호 참사 당시의 공무원 집단이 떠오른다. 2014년 4월 16일 탑승자 476여명 중 300여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청와대에는 모두가 구조됐다는 최초보고가 올라갔다. 워선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공무원적 마인드 아니겠는가. 그들 덕에 세월호도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다.

철밥통인 타 공직과 달리 군·경·소방은 위험이 도사리는 직위임을 망각한 듯하다. 그래서 월급쟁이와 초식을 합친 '샐러드 군인'이란 말도 나온다. 특히 삼각지의 군인들의 옷에선 화약냄새 대신 섬유유연제 냄새만 풍긴다고 하니 말이다.

/captinn@metroseoul.co.kr

롯데칠성, 국가유공자에 5개월간 생수 지원

호국보훈의 달 감사마음 담아
민관합동 사회공헌 활동 진행



지난 16일 서울지방보훈청사에서 롯데칠성음료 정찬우 HR부문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이상춘 서울지방보훈청장(왼쪽에서 세번째) 등은 국가 유공자 생수 지원 선양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대상 인원을 늘렸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작년부

터 서울지방보훈청과 함께 호국보훈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중기부, 동행세일 동참 챌린지 진행

인스타그램 '릴스' 플랫폼서
득템보템 노래 동작 영상 게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7일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행세일 득템보템 챌린지'를 시작했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최근 2030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 '릴스(Reels)'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동행세일 득템보템 노래'에 맞춰 동작을 따라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릴스에 게시하면 된다.

동행세일 득템보템 노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모두가 득템이 되고 보템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중기부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릴스 단추에서 '득템보템 챌린지'를 시청하고 아래의 더보기 탭에서 '이 릴스 리믹스하기'를 선택해 영상을 촬영한 뒤 필수

해시태그인 '#동행세일'과 '#득템보템챌린지'를 입력해 본인 계정에 올리면 된다.

다음달 11일까지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한 영상 게시자 중 추첨해 1명에게 75인치 대형 텔레비전, 5명에게 물걸레 로봇청소기, 10명에게 무선 안마기, 50명에게 휴대용 미니 선풍기 등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음달 11일까지 홍보 모델 박소이가 시장, 마트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촬영한 동행세일 입소문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한 게시물 중 추첨해 1000명에게 공기청정기 등 경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행세일 홈페이지, 중기부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지난 17일 이창용 SK증권 ESG부문장(왼쪽)이 후원 협약식을 마친 후 김석현 대한사회복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증권 임직원 자투리 급여 기부 입양대기 아동 후원 협약

SK증권은 최근 대한사회복지회와 입양대기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자투리급여 성금을 기부하고 후원협약을 맺었다.

후원금은 임직원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양육물품 구입비와 의료비로 사용된다.

/송태화 기자 alvin@

인사

- ◆ 환경부 ◇과장급 전보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조현수 △기후변화정책관실 신기후체제대응팀장 민중기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강성구 △물환경정책관실 수질관리과장 박병연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배연진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장 김지영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장 김정환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한준욱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홍경진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장 신건일 ◇과장급 승진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박주영 △자연보전국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 김지수

부음

▲지경자씨 별세. 김근덕씨 모친상. 진태석(전 대구KBS 부장)·김현수(전 대우자동차 부장)·곽경호(이포커스 대표)씨 장모상 = 19일 오전 8시30분,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401호실, 발인 21일 오전 9시. 051-305-4000